

한국 경제의 회고와 과제

새 천년의 첫해가 시작되었다. 지금 인류는 산업 사회에서 지력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나라는 IMF 관리 체제라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제 새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9년의 한국 경제는 위기 탈출과 경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시기였다. 1998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어섰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증대하여 외환보유고는 무려 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되어 실물 경제의 회복을 도왔다.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어 경제 체질 선진화의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등 특정한 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시설 투자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표상 실업률은 하락하였지만, 중산층의 붕괴와 노사관계의 불안정 등 사회통합력의 제고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앞으로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다.

2000년에 우리 경제는 보다 치열해진 세계 경쟁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경제 성장률은 1999년보다는 둔화될 전망이지만, 보다 내실있는 성장이 될 것이다. 즉 소비 증가에 기인하기 보다는 수출 및 투자 증가에 의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환율과 금리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과 금융정책의 결과로 시

중 유동성이 증가하였고,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1999년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물가 상승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화 자금의 국내 유치가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절상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

한편 2000년에는 통상 마찰이 확대되어 수출 확대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당장 연초부터 환경라운드를 비롯한 뉴라운드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각종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 이전까지는 쌍무 통상 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 하에서 한국 경제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뒤쳐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경제구조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둘째, 사회 통합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순히 이전 지출에 의한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으로 중산층을 되살리고 빈곤 계층을 줄여 가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성장 원천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에 걸맞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과거의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병폐는 인간 가치의 경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지력 사회는 인간 지식이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가치관은 인간 존엄성과 창조성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새 천년의 첫 해인 2000년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지를 평가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두가 창조적인 지혜와 유연한 적응 능력,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앞에서 열거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면 우리는 새 천년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

(편집주간 박 동 철 dcpark@hri.co.kr ☎ 724-4030)